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孤立無援의 絶域에서 구현한 儒家之敎의 表象-

정시열**

<차례>

1. 머리말
2. 君子固窮: 이상과 현실의 괴리 - 冲庵 金淨
3. 舍生取義: 포기과 달관의 경계 - 桐溪 鄭蘊
4. 和而不同: 긍정과 부정의 공존 - 北軒 金春澤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조 한문학에서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에 관해 고찰한 논문이다. 조선조 한문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선비정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儒家의 기본 경전이자 孔孟의 사상이 집약된 四書를 통해 이들 유배인들의 詩文에 접근하는 것은 제주 유배 문학이 조선조 한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하는 일이며 동시에 제주 유배 문학이 조선조 한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탐색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유배인들 중에서 제주에서의 명망과 인지도, 詩文의 특성과 작품성 등을 고려해서 충암 김정, 동계 정은, 북헌 김춘택의 유배 시를 대상 텍스트로 정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유배 시기가 16,17,18세기의 분들이 고루 선정되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己卯名賢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충암 김정의 제주도 유배 한시를 대상으로 '君子固窮'의 자세에 대해 논의했다. 충암은 1년 2개월간의 제주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유배기 동안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固窮’의 자세를 꺾듯이 견지하다가 36세의 나이로 賜死된 인물이다. 제3장에서는 ‘舍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해서 동계 정은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해 논의했다. 동계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스승 정인홍 등의 대북파에 맞선 인물로서 영창대군을 죽인 강화부사 정항을 참수할 것을 청했다가 광해군에 의해 46세 때인 1614년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그 후 艱苦한 9년의 세월을 보내고, 1623년 55세 때 인조반정으로 해배되었다. 제4장에서는 ‘和而不同’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헌 김춘택의 제주 유배 한시를 살펴보았다. 북헌에게 있어 제주도는 부자간 2대에 걸친 유형지로 愛憎의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유배 시절 북헌의 시에는 제주도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나타난다.

이 세 분은 제주 유배라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개인적 상황과 처지의 차이가 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유배 시에 나타난 시적 특성의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있어, 儒家之教의 구현 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한 결과 세 분들로부터 각각 ‘君子固窮’, ‘舍生取義’, ‘和而不同’의 정신 자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이 孤立無援의 絶域에서 구현한 儒家之教임을 확인했다.

주제어 제주도, 유배, 총암, 김정, 동계, 정은, 북헌, 김춘택, 군자고궁, 사생취의, 화이부동.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조선조 한문학에서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을 儒家之教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조 한문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선비정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儒家의 기본 경건이자 孔孟의 사상이 집약된 四書を 통해 이들 유배인들의 詩文에 접근하는 것은 제주 유배 문학이 조선조 한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제주 유배 문학이 조선조 한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탐색이기도 하다.

환로에서 겪는 영욕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았는데 유배는 政客이 살아서 당하는 큰 치욕 중 하나였다. 세계적인 관광·휴양 도시가 된 현재의 제주도를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조선 시대의 제주도는 중국의 해남도가 그랬듯이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정배되는 유형지 중에서도 最惡地로 여겨졌다.

조선조 500년 동안 제주에 유배되었던 사람의 수는 대략 2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¹⁾ 본고에서는 冲庵 金淨(1486-1521), 桐溪 鄭蘊(1569-1641), 北軒 金春澤(1670-1717)의 詩文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²⁾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는 제주에서의 명망, 詩文의 특성과 작품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명망에 있어서 충암과 동계는 제주의 橘林書院에 배향된 오현에 속하는 분들이며,³⁾ 복헌은 부친 金鎮龜에 이어 부자 2대에 걸친 謫客으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제주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다. 만약 이 분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제주에서 지금까지 기억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시적 특성에 있어서 이들 세 분의 시에는 유배 시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우울, 절망, 향수와 같은 보편적 정서 외에 작가의 입장 차이에 기인한 개별적 특성이 나타났다.

1)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24면.

2) 우암 송시열(1607-1689)도 제주 굴림서원에 배향된 오현 중 한 분이다. 우암은 숙종 15년인 1689년 기사환국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왔다. 대학자요 거물 정객인 우암의 제주 유배는 그 상징적 의미가 지대하다 하겠으나 제주에 머무른 기간이 불과 100여 일이고, 그 기간 동안 주로 독서에 전념했으며, 지은 한시도 15수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3) 橘林書院은 선조 때 판관 조인후가 충암 김정 선생의 사당을 세운 데서 비롯되어 현종 때 최진남이 藏修堂을 齋로, 충암의 묘를 祠로 삼아 橘林書院이라 현액했다. 그 후 김상헌, 정은, 송인수, 송시열을 함께 모셔 五賢祠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서원철폐령으로 여러 가지 문적들을 제주 향교로 옮겼다.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250면 참고)

충암, 동계, 복헌은 모두 제주로 유배를 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유배 당시의 상황과 처지가 달랐는데, 이런 차이가 시에 반영되어 서로 다른 변별적 특성을 만들어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시에서 儒家의 가르침인 儒家之教가 어떤 차이를 보이면서 구현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유배 기간을 보면 충암은 1520년부터 1521년까지 14개월, 동계는 1614년부터 1623년까지 9년, 복헌은 1706년부터 1710년까지 4년인데 이는 충암의 처형이 그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했던 충암에게 있어 기묘사화의 충격과 채 1년이 안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금산, 진도, 제주도로의 이배는 그가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모친의 병환과 가족에 대한 근심으로 애태우던 충암은 마음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賜死되었다. 그런 까닭에 충암의 시에서는 이상이 좌절된 채 궁벽한 현실에 처한 선비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존을 지키고자 절규하는 비장함이 느껴진다.

충암과는 달리 동계가 제주에 왔을 때 그는 이미 불혹을 넘기고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이러한 연륜에다 상황 자체가 비록 광해군의 친국을 받기는 했지만 그를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기에 그리 비관적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동계의 시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一身의 안위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여유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헌은 47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평생 동안 세 차례의 투옥과 다섯 차례의 유배를 겪을 만큼 정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친을 보필하기 위해 제주에 와서 장기간 머문 적이 있었기에 30대 때의 유배는 제주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제주가 낯설지 않았던 복헌은 충암, 동계와는 달리 제주 자체를 제재

로 해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들 시에는 그의 편치 않은 소회가 반영되어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교차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약 200년의 세월 속에서 제주 유배인으로 기억되는 세 분의 詩文에 구현된 儒家之敎의 양상과 그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君子固窮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冲庵 金淨

일찍이 공자는 ‘軍旅之事’를 묻는 衛靈公을 떠나 陳나라에 머물렀는데 이때 식량이 떨어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진 자로의 항의에 대해 공자는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⁴⁾라고 대답했다. “군자라야 진실로 곤궁할 수 있고, 소인은 궁하면 이에 (행동) 넘친다.”는 이 말에서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己卯名賢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충암 김정 의 제주도 유배 한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君子固窮’의 자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충암은 1년 2개월간의 제주 유배기 동안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固窮’의 자세를 꺾이지 않다가 36세의 나이로 賜死된 인물이다.

1507년, 22세 약관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한 충암은 도승지, 이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진사림파의 일원으로 조광조와 함께 도학을 앞세운 개혁 정치에 힘썼으나, 1519년 훈구파가 주도하고, 중종이 지지한 기묘사화로 인해 실각했으며, 충청도 금산, 전라도 진도를

4) 『論語』, 「衛靈公」篇, 第1章.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도 위리안치⁵⁾의 유배형에 처해졌다.

자신이 꿈꾸어 온 이상과는 어긋난 정치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다 쓰러져간 충암은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1년 여만에 賜死되고 말았다. 혈기방장한 청년 정치가로서 큰 정치적 좌절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갑작스레 닥친 사화였던 만큼 이 사건은 그에게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 충암의 심정은 『海島錄』⁶⁾에 수록된 40여 수의 유배 시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는 시간을 보증할 수 없고,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 마음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써 뜻을 삼을 겨를이 없다.”⁷⁾는 그의 토로에서 자신의 앞날을 예감한 한 선비의 비감한 심사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충암이 어떻게 무력감을 극복하고 ‘固窮’의 자세를 지켜내고자 했는지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에 제시된 시는 <積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충암이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을 절망감이 표현된 작품이다.

積水浮天極 쌓인 물이 하늘가에 떠 있는데
 溟茫漾太虛 아득히 허공에서 출렁이네.
 地孤疑世外 땅이 외지니 세상 밖이 아닌가 싶고

5) 위리안치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중죄인을 가두는 형벌로서, 거제도나 진도 등의 섬에 가두는 絶島安置보다 가혹했다. 위리안치와 유배문학에 관한 내용은 이종묵의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한국문화연구』 제9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를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위리안치를 포함한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 유배인의 동향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고창석의 『朝鮮朝의 流刑制度和 濟州島』(『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6.)를 참고하면 된다.

6) 『海島錄』에 수록된 詩文의 번역은 『國譯 沖庵集(上·下)』(김종섭 번역, 충암 문간공 중증 발행, 1998)를 참고했다.

7) 『沖庵集』 卷4, <濟州風土錄>, “吾時日不能自保, 無久遠, 心不暇以栽植爲意.”

人遠得秦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진나라의 난민일세.
 舟楫通吳楚 뱃길은 오나라 초나라로 통하고
 魚龍半邑墟 물고기와 용이 마을터의 반이로다.
 乘桴潛聖歎 떼를 타고 나가지는 성인의 탄식을 간직하고
 終不陋蠻居 끝내 야만의 거처도 누추하다 하지 않으리.⁸⁾

수련과 함련의 시상은 제주가 궁벽한 곳임을 말해 준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아득한 수평선만이 보이는 제주의 광경이 마치 눈에 들어오는 듯 선명하다. 이와 함께 함련에 사용된 ‘孤’와 ‘遠’은 당시 외롭게 소외된 층암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시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경련의 내용은 제주의 위치와 관계된 것으로 앞부분의 시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 오나라, 초나라와 가까울 정도로 국토의 한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고기와 용이 마을의 반을 차지할 만큼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보여 준다.

마지막 미련은 층암이 『論語』의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공고히 한 부분이다. 일찍이 공자는 천하에 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탄식하며 뗏목을 타고 떠나고자 했으며⁹⁾, 오랑캐의 땅인 九夷에 대해서도 “군자가 거처한다면 (九夷 땅에)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¹⁰⁾라고 말하며 도를 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고자 했다. 뜻을 펴지 못한 자의 울울한 심회를 반영한 공자의 말을 되새기며 층암은 異域의 땅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도학 전파의 뜻을 다졌던 것이다.

비록 곤궁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자 한 층암의 자세는 <遺懷>라는 제목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冲庵集』 卷3, <積水>.

9) 『論語』, 「公治長」篇, 第6章, “子曰, 道不行, 乘桴, 浮于海.”

10) 『論語』, 「子罕」篇, 第13章,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海國恒陰翳 바다 지역은 항상 음침하고
 荒村盡日風 황량한 마을엔 종일 바람이 부네.
 知春花自發 봄을 이는지 꽃은 절로 피고
 入夜月臨空 밤이 되면 달이 허공에 떠오르네.
 鄉思千山外 저 멀리 고향을 그리워하나니.
 殘生絕島中 남은 생을 절해의 고도에서 보내겠구나.
 蒼天應有定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이니
 何用哭途窮 길이 막혔다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¹¹⁾

수련은 충암의 눈에 비친 제주의 모습이자 동시에 음울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심정이다. 함련에서는 이러한 절역의 땅에서도 밤낮의 변화가 있고, 계절이 순환함을 읊었다. 기구한 운명에 놓인 인간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한결같은 자연의 운행은 무심하기만 하다. 경련에서는 충암의 심사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특히 ‘千山’과 ‘絶島’라는 시어에서 당시 그가 느꼈을 심리적 격절감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 미련에서 충암은 죽림칠현의 중심 인물인 阮籍(210-263)의 고사를 통해 ‘固窮’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였다. 완적은 마음 내키는 대로 수레를 몰다가 길이 막힌 곳에서 통곡했던 인물인데 뜻있는 선비였으나 당시 세상과는 맞지 않았기에 쓰이지 못했다. 하지만 완적의 자세와는 달리 충암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도 하늘의 뜻이기에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夢>이라는 시에서도 “나를 이는 것은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¹²⁾라고 탄식했는데 이러한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일찍이 공자는 “貧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온당한 방법

11) 『冲庵集』 卷3, <遺懷>.

12) 『冲庵集』 卷3, <夢>, “知我者其天.”

으로 얻지 않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¹³⁾고 했다. 충암은 공자의 이러한 자세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거듭된 각오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충암에게 있어 제주도는 여전히 낯선 환경이었다.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조정에서 응지를 펼치던 신진 관료였다. <去國>이라는 제목의 다음 시에는 ‘固窮’의 상황에 직면한 충암의 인간적 고뇌가 드러난다.

去國投蠻徼	도성을 떠나 야만의 지역에 갔드니
殘骸半死生	쇠잔한 몸은 죽을 지경이네.
羈窮分不憫	나그네로 궁핍한 분수는 불쌍치 않으나
骨肉正關情	골육을 그리워하는 정은 어이하리.
天地容何大 ¹⁴⁾	천지의 용량은 얼마나 큰가.
溟濤濟後平	큰 바다의 파도는 건넌 뒤에야 잔잔하네.
如同何陋志	누추한 뜻을 어찌 하리오.
魑魅足群行 ¹⁵⁾	도깨비들도 무리 지어 다니겠네. ¹⁶⁾

수련에 제시된 충암의 모습은 목숨만 붙어있을 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러한 자기 한 몸의 고난은 감내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모친과 어린 자식에 대한 근심이였다. <悼文士豪>라는 시에서 “어머니는 늙었고 자식은 어린데, 모든 일이 허무하게 되었구나.”¹⁷⁾라고 탄식했듯이 유배 당시 그의 모친은 와병 중이었다. 실상 그가 제주도로

13) 『論語』, 「里仁」篇, 第5章, “貧與賤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14) 大는 德으로 된 곳도 있음.

15) 足은 可로 된 곳도 있음.

16) 『冲庵集』卷3, <去國>.

17) 『冲庵集』卷3, <悼文士豪>. “母老兒女稚, 萬事付陸鹿.”

이배된 것도 유배자의 신분으로 병석에 누운 모친을 뵈다가 당한 사건이었다. 함련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는 것은 충암에게 있어 또 하나의 ‘固窮’인 셈이었다.

경련과 미련의 시상은 다시 자신이 처한 제주의 상황으로 돌아왔다. 망망한 바다 한 가운데 위치한 외딴섬에서 견뎌야 할 고통은 단지 외로움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도학을 공부한 선비인 충암에게는 자신과 대화할 만한 상대가 없는 외로움이 그 무엇보다도 컸다. <絶國>이라는 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찾아줄 사람이 없는데, 외로운 이 몸은 가시나무로 집이 둘러 있네.”¹⁸⁾라고 읊었듯이 도학의 가르침이 미치지 못했던 당시의 제주는 도깨비가 무리지어 다닌다고 표현할 만큼 뜻있는 선비가 처하기에는 비탄에 잠길 만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험난함은 자연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음 시는 제주의 여름 기후를 묘사한 작품이다.

炎洲沒鯨浪 무더운 남쪽 지역은 큰 파도에 잠기고,
瘴雲蒸曉昏 음습한 구름은 아침 저녁으로 폭폭 찌네.
餘生伴魑魅 남은 생을 도깨비와 어울리나니
遠客任乾坤 멀리서 온 나그네는 천지에 맡겨 두리.¹⁹⁾

한여름 제주의 뜨겁고 축축한 기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토박이가 아닌 이들에게는 실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시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이러한 상황은 충암의 다른 작품에서도 보이는데, <晷>라는 시에서는 “독기 피어오르는 바다, 뜨거운 구름으로 아침 저녁 폭폭 찌고, 수풀 우거진 곳에

18) 『冲庵集』 卷3, <絶國>, “絶國無相問, 孤身棘室圍.”

19) 『冲庵集』 卷3, <和李德優>.

선 모기와 파리가 우글거리네.”²⁰⁾라는 표현으로 제주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충암은 비록 도학을 공부한 선비가 있을 곳이 못 되는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대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쪽을 선택했다. 이처럼 ‘固窮’을 지키는 그의 자세에서는 한편으로 자포자기의 심사가 묻어나는데 이 점이 시가 지닌 비감함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충암이 제주에 대해서 기록한 <濟州風土錄>의 일부를 살펴보자. 제주 지역 풍토지로는 최초이며, 당시의 제주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글에는 제주도의 풍토 및 문화 일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기후 조건과 그에 따른 가옥 구조, 독특한 풍속, 관원의 횡포, 토지 경작 양상, 동물과 토산물, 자신의 유배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²¹⁾된 이 기록은 16세기 제주 지역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며, 당시 충암의 비장한 심사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울릴 만한 뜻 맞는 사람이 없어서 자네가 말한 대로 마음에 즐거울게 거의 없고, 또한 국법이 두렵기도 하여 외출하는 것이 극히 드무니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에 불과하고, 혹은 한 달이 넘도록 나가지 않으며, 배나무 정자에도 자주 가지는 않는다. 굴밭은 더욱 가는 일이 드문데 가더라도 혼자 어정어정 걷다보면 단지 적막감만 더할 뿐이다. (굴이 익을 때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또한 멀리해야 한다. 관청에서도 지키는 사람을 둔다.) 골육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친지들은 아득하며, 옛날에 노닐고 어울렸던 사람들도 죽은 이가 이미 많으니, 하늘 밖에 외로운 몸으로 얼마나 세상사를 맛보았던가.²²⁾

20) 『冲庵集』 卷3, <暑>, “瘴海炎雲旦夕蒸, 林叢蕪鬱足蚊蠅.”

21)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1982, 93면 참고.

마음이 맞는 사람,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는 현실, 게다가 죄인의 신분이기에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충암의 처지를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뜻을 같이 했던 과거의 동지들은 죽었고, 살아남은 자신은 멀고 먼 제주에서 하루하루 艱苦한 삶을 이어갔다. 충암은 이 풍토록에서 “아마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만두려 하여도 그럴 수 없는 것은 또한 아무도 모르는 운명이 미리 정해진 것 같으니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는가.”²³⁾라고 탄식했는데, 이로 보아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죽음까지도 예견한 듯하다. 절해고도 유형의 땅에서 불가항력적 운명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충암의 자세는 공자가 말한 ‘君子固窮’의 전형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舍生取義 : 포기과 달관의 경계 - 桐溪 鄭蘊

일찍이 맹자는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義를 취하겠다.”²⁴⁾는 ‘舍生取義’의 자세에 대해 실과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맹자는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원하는 바가 삶보다 심한 것이 있기에 삶을 구차히 얻으

22) 『冲庵集』卷4, <濟州風土錄>, “既無意中人可共, 如君所言略無心悰, 且國法可畏, 故其出甚稀, 一朔不過或一或二, 或踰朔不出, 梨亭亦不甚數出. 橘園尤稀往, 踽踽獨步, 秣增索寞耳. (橘熟時則嫌, 亦宜遠. 官有直守.) 骨肉隔絕, 親知悠緬, 昔時遊從, 凋喪已多, 天外孤身, 幾嘗世故.”

23) 『冲庵集』卷4, <濟州風土錄>, “蓋有欲來不得, 欲止不免者, 似亦冥數前定, 何足與焉.”

24) 『孟子』, 「告子」上, 第10章,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려 하지 않으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심한 것이 있기에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²⁵⁾고 했다. 맹자의 지적대로 이러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지만 賢者만이 이것을 능히 잃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舍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해서 동계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계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스승 정인홍 등의 대북파에 맞선 인물로서 영창대군을 죽인 강화부사 정항을 참수할 것을 청했다가 광해군에 의해 46세 때인 1614년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그 후 艱苦한 9년의 세월을 보내고, 1623년 55세 때 인조반정으로 해배되었다. 인조 즉위 후 동계는 강직한 선비로 자리매김되어²⁶⁾ 사간, 이조참의, 대사간, 대제학, 이조참판 등의 淸要職을 역임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정에서는 반정공신들의 비리와 병권장악을 논박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강경한 戰守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결을 시도하는 등 열혈지사적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처럼 비범한 삶의 궤적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동계의 제주 유배 한시²⁷⁾에는 앞서 충암의 한시를 통해 살펴본 ‘君子固窮’의 자세에서 그치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평판이나 시비로부터 벗어나 一身의 安危 대신 ‘義’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는 세상사에 대한 포기와 달관의 미묘한 경계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한창 활동할 시기

25) 『孟子』, 「告子」上, 第10章,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26) 동계는 남명 조식의 敬義 사상을 계승하여 엄격한 출처관, 사회적 실천 정신, 현실지향적 학문을 추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부영근,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동아인문학』 제10집, 동아인문학회, 2006, 49면 참고.)

27) 『桐溪集』에 수록된 詩文의 번역은 『국역 동계집(1·2·3)』(조동영, 공근식, 박대현 번역, 민족문화추진회, 2000-2004)을 참고했다.

에 맞닥뜨린 유배 생활은 그의 강골한 기질과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부조화 속에서 생겨난 고뇌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舍生取義’의 정신 자세가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제시된 시 <別詩兒後書贈>은 동계가 자신을 찾아 제주까지 온 장남 昌詩를 보내고 난 뒤에 쓴 작품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유배은 지 3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別後寥寥坐數莢	이별한 뒤 허릴없이 앉아서 날짜를 세노라
汝行何日達家庭	네가 가면 언제쯤 집에 도착할꼬 싶다
三年柵裏孤囚影	위리안치 삼 년 간 외롭게 갇힌 나
萬頃舟中獨去形	만경창파에 배 하나 홀로 가는 너
母子弟兄星各散	모자와 형제가 뿔뿔이 흩어진 지금
毀譽非是夢還醒	훼방이다 칭찬이다 그런 시비 꿈을 깨었네.
高堂忠養如無倦	집에 계신 어머니 봉양 게을리나 않는다면
瘴海殘魂死亦寧	거친 바닷가에 시든 나야 죽어도 편하리라. ²⁸⁾

이 시에서 강조된 부분은 모친에 대한 봉양이다. 창시가 부친인 동계를 뵈고자 먼 길을 왔듯이 동계 자신도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했다. 그는 모친의 생신을 맞이해서 지은 시에서 “자식 셋을 낳아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셨거늘 노쇠한 형만이 슬하에 머물러 있을 뿐이어라.”²⁹⁾라고 했으며, 창시에게 부친 편지에서는 “아버지는 타고난 운명이 奇薄하여 한 분뿐인 老母를 조석으로 봉양하지 못한 채, …(중략)… 예전에는 북쪽 변방으로 좌천되고 이제는 또 남쪽 섬으로 유배되니, 비록 스스로 초래한 일이

28) 『桐溪集』 卷1, <別詩兒後書贈> 二首中其一.

29) 『桐溪集』 卷1, <八月初三日, 有感而吟>. “勛勞生育三兒了, 惟有衰兄膝下留.”

라지만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느냐³⁰⁾라고 하는 등 가까이서 모친을 봉양하지 못하는 슬픔을 늘 안고 있었다. 이러한 효는 인륜 가운데 으뜸가는 도리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벼슬을 사양하는 등 임금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의 수련에는 아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는 부정이 담겨 있으며, 한편에는 부자간에 동고동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데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외로운 형상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가족과의 이산을 겪은 뒤 세상에서 따지는 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읊었다. 그가 <次贈吳倣韻>에서 “배소에서 지내느라 백발의 늙은이 되었나니, 창천을 향해 궁함과 형통함을 묻지 않으리라.”³¹⁾라고 한 데는 바로 이러한 정신적 성숙이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미련은 이 시의 시상이 집약된 부분으로 먼 곳에 유배된 자신이 야 어찌됐든 오직 어머니만이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노모에 대한 이러한 효심은 동계의 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연작시 <思家五首>의 첫 수에서는 “언제쯤 성대한 은덕 입어 풀려나서 다시 색동옷 입고 재물을 피워 볼거나.”³²⁾라고 탄식했다. 그 옛날 중국 老萊子³³⁾의 효도를 생각하며, 일신의 안위보다는 모친에 대한 봉양을 간절히 원했던 동계의 마음이야말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의로움의 결정체일 것이다.

다음 시는 새벽에 일어나서 지은 작품으로 제목이 <聞鷄起坐>이다. 청명한 새벽 기운을 받아 더욱 또렷해진 동계의 정신 세계가 행간에서 느

30) 『桐溪集 續集』卷1, <寄昌詩 九月十日>, “父賦命奇薄, 惟有一老母. 不能朝夕奉養, …(中略)… 昔焉北塞, 今又南荒, 雖因自取, 能不爲懷.”

31) 『桐溪集 續集』卷1, <次贈吳倣韻>, “荊籬白髮已成翁, 莫向蒼天問塞通.”

32) 『桐溪集』卷1, <思家五首>其一, “何時蒙霽宥, 重攬彩衣長.”

33) 중국 춘추시대의 효자. 나이 70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겨지는 작품이다.

鷄未鳴時已罷眠	닭이 울기 전에 잠에서 벌써 깨었는데
鷄鳴起坐意茫然	닭이 울자 일어나 앉으며 생각이 어둡히구나.
是非得失千年事	시비와 득실은 천년 동안 항상 있는 일이고
否泰盈虛萬古天	비태와 영허는 만고에 변치 않는 법이로세.
夜氣清明須戒晝	야기 청명하니 모쪼록 낮에 경계해야 하고
心源澄澈也如淵	마음 근원 맑으니 깊은 연못 같이 해야 하리.
若除千里思親淚	천리 밖 모친 생각하는 눈물 그칠 수만 있다면
無慮還同太古先	걱정 없음이 도리어 태고 이전과 같겠구나. ³⁴⁾

이 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는 성격이 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효에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련에서는 유배지에서의 근심 때문인지 잠이 없어진 동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은 <曉坐誦書>란 시에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꿈을 깨고서, 오경쯤 일어나도 시름은 풀리지 않더라.”³⁵⁾라는 시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함련에서는 옹고그름, 불행과 행복, 차고 이지러짐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되는 인간사의 무상함에 대해서 읊었는데, 앞의 시 <別詩兒後書贈>에서 세상사 시비의 꿈을 깨었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경련에서는 『孟子』에 등장하는 夜氣說³⁶⁾을 통해 자기 수양의 의지를 다졌다. 夜氣란 사물의 생장을 돕는 맑은 기운으로 한밤에 생겨난다. 맹자는 사람에게 본연적으로 있는 仁義의 마음이 자라도록 돕는 기운을 이 夜氣에 비유하면서 낮에 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이 시구에서는

34) 『桐溪集』 卷1, <聞鷄起坐>.

35) 『桐溪集』 卷1, <曉坐誦書>, “曉鷄聲裏夢初回, 起坐五更愁未開.”

36) 『孟子』, 「告子」上, 第8장 참고.

외부 활동에 대한 근신, 청명한 마음 상태의 유지와 같은, 선비로서 지켜야 할 ‘義’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잘 드러났다.

끝으로 미련에서는 모친을 모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했다. 효를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의 한이 이처럼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에 시 <次贈吳而混>에서는 “세상의 영고성세에 장대한 뜻을 던져버렸고, 고당에 계신 어머니 연세 일흔을 넘겼구려.”³⁷⁾라고 읊조리며 상심의 눈물을 떨구었던 것이다. 이처럼 동계는 인간사의 희노애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구했지만 선비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던 도학군자였다.

다음 시는 1617년(丁巳年)작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 온 지 햇수로 4년, 동계의 나이 49세 되던 때 지은 작품이다.

茅簷雨滴漸泠泠	처마 끝에 듣는 빗방울 소리 점점 차가운데
瘴氣乘風滿海城	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 해성에 가득하여라.
萬事筭來孤笑發	만 가지 일을 따져 보니 웃음이 절로 난다.
衆脣諠處寸心明	사람들의 비방 소리에도 내 마음은 밝도다.
早將生死歸穹昊	일찍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늘의 뜻에 맡겼거늘
肯把榮枯惱性情	영화와 쇠락으로 성정을 고달프게 하라.
看盡暮雲爭北向	저녁구름이 북쪽으로 치달리는 것을 끝까지 보
	았다만
明朝分散又何營	내일 아침에 흩어지고 나면 또 무엇을 할까. ³⁸⁾

이 시에서도 동계는 ‘義’를 앞세우고 자신의 생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수련에서는 유배지의 습하고 독한 기운이 주위를 가득

37) 『桐溪集 續集』卷1, <次贈吳而混>, “浮世榮枯拋壯志, 高堂喜懼過稀年.”

38) 『桐溪集』卷1, <雨中謾成>丁巳.

채우고 있음을 읊었다. 이런 처지에 놓이고 보니, 함련에서처럼 인간 만사가 한갓 어린애 장난마냥 우습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비방에도 마음은 고요하기만 하다. 평소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경지였으나 목숨이 오기는 극단의 환경에 놓이고 보니 세상사가 사소하고 부질없이 여겨짐은 당연한 것이었다.

경련에서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준다. 조변석개하는 인간사의 부침에 시달리는 대신 생사를 하늘에 맡긴다는 말에서 현실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의젓한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性情을 보존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놓여났을 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 또한 동계는 일상의 삶에 얽매어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性情의 도야임을 알았기에 목숨 대신 ‘尊德性’을 선택했던 것이다.³⁹⁾

미련에서 북쪽으로 치달리는 구름을 끝까지 바라봄은 아마도 임금에 대한 마음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흩어지고 말 구름이기에 마음은 허망하기만 하다. 그래서 동계는 <十月三日, 夜坐偶吟>에서 “임금과 신하는 멀리 삼천 리나 떨어져 있고, 어미와 자식은 서로 팔구 년이나 그리워하네.”⁴⁰⁾라고 읊었다. 비록 자기 일신의 안락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義’를 중시하는 동계로서는 가까워야 할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산된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동계가 제주에 온 지 만 5년 되던 해인 1619년, 51세 때

39)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가를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벼슬길에 있는 일상적인 생활 중에는 요원했던 일이다. 이에 반해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배로 인해 확보된 한가한 시간과 뜻밖의 고난,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은 당사자에게 다양한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이런 데서 유배문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조동일은 강조했다. 조동일의 논문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한국문화연구』 제9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참고.

40) 『桐溪集』 卷1, <十月三日, 夜坐偶吟>, “君臣遠隔三千里, 母子相思八九齡.”

완성한 『德辨錄』의 서문 중 일부이다. <文簡公桐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이 책은 經史와 前賢의 말씀 가운데서 옛사람이 곤궁에 대처한 도리를 수집하고 채록해서 엮은 것이다.

아, 困이란 사람이 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경한 자는 너무 과격한 데 지나쳐서 원망을 줄여야 된다는 경계를 어기고, 나약한 자는 지지분하고 아첨하는 데 빠져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 과격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면서 형통함을 잃지 않는 자는 오직 군자일 뿐이다. 程子가 이르기를, “시기가 곤궁한 때를 당하여 도리어 몸이 형통하다면 비록 형통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곤한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환난과 빈천에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니, 만약 부귀와 영달이라면 배우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고 하였다. 내가 이 『덕번록』을 집성한 것 역시 환난에 대처하고 친한 자리에 거처하는 도리를 배워서 도(道)에 곤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⁴¹⁾

위 인용문에 제시된 ‘困’자는 동계가 제주에서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말이다.⁴²⁾ “북쪽 변방에선 옛날에 풍상을 겪었고, 남쪽 바다에선 지금도 묶여 있노라.”⁴³⁾는 시구의 내용처럼 동계는 힘든 상황에 직

41) 『桐溪集』 卷2, <德辨錄序>, “嗚呼, 困者, 人之所難處也. 剛者, 過於矯激而有違寡怨之戒, 懦者, 淪於污詔而未免入谷之恥. 不激不詔而不失其所亨者, 其惟君子乎. 子程子曰, 時當困而反亨身, 雖亨, 乃其道之困也. 又曰, 學者, 學處患難貧賤, 若富貴榮達, 卽不須學. 余之集成此錄者, 其亦學處患居賤之道, 而求以不困乎道而已.”

42) 제주도는 관료로서 근무하기에도 힘든 곳이었던 만큼 유배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박동욱의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정현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어문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는 제주도에 서 27년을 謫居한 조정철(1751-1831)이 남긴 기록에 대한 고찰이다. 제주 유배객의 구체적인 생활상 즉, 음식, 의복, 거처, 감시와 규제, 현지인과의 유대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면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위의 『德辨錄』 서문에서 강경하고 나약한 자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과격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면서 형통함은 바로 중용의 덕을 말한 것이다. 동계는 비록 자신이 이 덕을 이루지 못한 까닭에 유배를 와서 고초를 겪고 있지만 도에 궁핍한 인물이 되기를 거부했다.

<獨步>라는 시의 “임금이 정해 준 문 밖으론 한 치도 못 나가니, 방문을 닫고서 칩거한 지 여러 달이 지났구나.”⁴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그는 구속된 죄인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선비로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환난과 빈천은 동계가 이미 각오한 일이었기에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선비의 도리를 지켜 ‘義’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뿐이었다.

동계는 제주목사 성안의에게 준 이별사에서 “네 그루의 푸른 솔은 한 자가 되었겠고, 쪽쪽 뺨은 대나무도 집을 덮었으려다.”⁴⁵⁾라는 호쾌한 목소리로 귀양살이 10년의 고단함을 떨쳐냈다. 그가 10년 남짓의 세월을 보낸 제주는 당시 도학의 교화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풍습은 詩書와 禮樂을 좋아하지 않고,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일삼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儒者의 관을 쓰고 있는 나를 보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서적을 대하고 있는 나를 보면 색다른 무리라고 생각한다.”⁴⁶⁾라는 그의 글로 서도 알 수 있듯이 그곳에서 선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임에 분명했다.

동계가 제주를 떠나면서 남긴 “세상일의 부침이란 모두가 꿈인 게야.

43) 『桐溪集』 卷1, <贈別昌詩還鄉>, “北塞昔風霜, 南溟今縹緲.”

44) 『桐溪集 續集』 卷1, <獨步>二首中其二, “天封門外難移寸, 杜戶龜藏累變莫.”

45) 『桐溪集』 卷1, <贈別濟州牧使成安義>, “靑松四箇應盈尺, 脩竹千竿想蔽除.”

46) 『桐溪集』 卷2, <擬剝啄行序>, “俗不喜詩書禮樂之習, 而惟射獵潛漁是事. 視我冠儒冠, 則指爲怪物, 見我對書籍, 則認爲異類.”

인간의 영욕도 본래는 허무한 것이네”⁴⁷⁾라는 시구에서 드러나듯 그는 세상사와 자신의 운명에 초연했다. 그랬기에 자기만의 질서를 가지고 인고의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동계는 <趙靜菴先生題蘭竹七絕後序>에서 “뒷날 이 그림을 보는 자가 난초를 난초로만 보지 말고 선생의 향기로운 덕을 생각하며, 대나무를 대나무로만 보지 말고 선생의 맑고 곧은 절의를 생각하며…(하략)”⁴⁸⁾고 적었다. 그가 자신의 謫所에 푸른 솔과 곧게 뻗은 수죽을 심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4. 和而不同 : 긍정과 부정의 공존 - 北軒 金春澤

군자와 소인의 처신에 대해 공자가 남긴 말 중에,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⁴⁹⁾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和하되 同하지 않으며, 소인은 同하되 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이 구절을 두고, 주자는 “和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마음이 없는 것이요, 同은 아첨하여 따르는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和’는 세상과의 조화를 추구하되 자신의 주견을 가졌기에 맹목적이지 않으며, 同은 자신의 분명한 주관 없이 한갓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이러한 ‘和而不同’의 정신에 입각해서 복헌 김춘택의 제주 유배 한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헌이 제주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691년 유배온 부친 金鎭龜를 모시면서부터였다. 그에게 있어 제주도는 부자간 2대에 걸친 유형지로 愛憎의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유배 시절 복헌의 시에는 제

47) 『桐溪集』 卷1, <贈別濟州牧使成安義>, “世事浮沈俱是夢, 人間榮辱本來虛.”

48) 『桐溪集』 卷2, <趙靜菴先生題蘭竹七絕後序>, “後之觀斯畫者, 不以蘭視蘭, 而思先生馨香之德, 不以竹視竹, 而思先生清直之節. …(下略)”

49) 『論語』, 「子路」篇, 第23章.

주도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나타난다. 그는 제주의 인물 및 자연과 화합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에서의 생활에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소회와도 관련이 깊은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흉중에는 유배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가득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왕명에 대한 불복, 즉 忠에 저촉되는 일이었기에 유배지인 제주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유배지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곳에서의 삶에 충실한 것은 임금에 대한 충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明哲保身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복헌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유배의 한을 읊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안목과 관점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양하게 노래함으로써 비록 絶域에 자리한 流刑의 땅이었지만 그곳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점은 복헌의 제주 유배 시가 지닌 중요한 특징으로서, 사실상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세상과 어울리며 화합하고자 하는 ‘和’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제주에서 고초를 겪으며 지내는 동안 복헌의 심중에는 정치적 현실과 타협하고픈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조정의 중론이 사그라들어 하루빨리 해배되기만을 기다리고, 제주에서의 삶에 안주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政敵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복헌은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신의 안위를 돌볼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듯하다. 복헌은 이들 세력과의 화합을 거부하며 자신의 도를 굽히지 않았는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직설적으로 내세우며 처벌에 불복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었기에 그는 제주도를 매개로 고뇌하며, 이 섬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탄식했다.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기를 거부

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헌이 지닌 ‘不同’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복헌의 가계를 보면 조부는 숙종의 장인인 광성부원군 金萬基, 부친은 호조판서를 지낸 金鎭龜, 종조부는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을 지었으며, 대사헌을 지낸 金萬重으로, 그의 집안은 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론 巨族이었다. 어려서부터 문장과 재주가 출중했던 복헌은 과거를 치르거나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노론을 위한 환국 모의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숙종 당시 치열한 정쟁의 와중에 28세 때인 1697년에 황해도 금천 유배를 시작으로 평생 5번의 유배형을 받았는데, 제주 유배는 그의 나이 37세 때인 1706년에 시작되어 1710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복헌은 제주의 자연, 지리, 풍속, 그리고 제주민과의 교류와 그들의 애환을 114제의 시가 실린 『囚海錄』⁵⁰⁾으로 남겼다. 제주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제재를 통해 표현한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복헌이 지닌 ‘和而不同’의 정신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시는 복헌이 東泉에서 山池로 謫所를 옮기며 지은 시이다. 전체 5언 66구로 된 장편시의 일부인데 거처에 대한 만족스러움이 행간에 가득하다.

…(上略)…

宅後青山岑	집 뒤엔 푸른 산봉우리
庭前碧海水	마당 앞엔 푸른 바닷물
風煙臨莽蕩	바람과 안개 드넓게 아득하고
花竹看明媚	꽃과 대나무 환하게 아름답네.

50) 『囚海錄』에 수록된 詩文의 번역은 『北軒集』(김익수 번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발행, 2005)을 참고했다.

最愛巖下泉 가장 아끼는 것 바위 아래 솟는 샘
 淸甘無與比 맑고 단 맛 건줄 바 없네.
 移居豈不宜 집을 옮겨 어찌 좋지 않으랴.
 一區兼衆美 한 구역이 모든 아름다움 갖추었다네.⁵¹⁾
 …(下略)…

이 시에 묘사된 경관은 유배인의 적소가 아닌 귀거래자의 거처라는 인상을 준다. 주위의 사물에 대한 복헌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집의 앞뒤로 자리한 푸른 산과 바다, 바람과 안개가 수목들과 어우러진 풍광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또한 바위 아래에서 샘솟는 물은 달고 시원하기까지 하니 시인의 마음엔 어디 한 군데 어그러진 곳이 없어 보인다.

복헌은 산지의 적소를 소재로 여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한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다 남쪽 진정한 나의 고향, 친히 아는 사람들 다시 모였네. 즐거워라 산지 집이여. 맑은 샘에 무성한 나무 비치네.”⁵²⁾ 이 시에서도 나타나듯 제주는 비록 먼 남쪽 땅 유배지였지만 그는 이곳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부친이 머물며 제자를 길렀고, 그들과 복헌은 인연이 깊었다. 이처럼 제주에 대한 그의 남다른 감회는 여느 유배인들과는 다른 것임에 분명했다. 복헌은 비록 제주라는 환경을 원하지 않았지만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 그곳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다음 시는 <濟州雜詩> 20수 중 마지막 수의 일부이다. 이 시에서도 유배인의 슬픔이나 고달픔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반가워하는 복헌의 모습에서 유배지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51) 『北軒集』卷2, <自東泉移寓山池>.

52) 『北軒集』卷2, <患難時, 高萬瞻李重發等, 不特効其知舊之情, 實有古人風義, 感而有述>, “海南眞吾鄉, 親知復相聚. 樂哉山池舍, 淸泉映茂樹.”

殊方爲客再 변방에 두 번 유배객 되니
 亦有故相知 역시 서로 아는 연분이 생겨
 白髮羞佳妓 흰머리건만 아름다운 기녀에겐 부끄럼 타고
 開顏賴小兒 개구쟁이 어린이에겐 웃음보 터지네.⁵³⁾
 …(下略)…

북현은 제주와 두 번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다. 그러한 생애가 고단할 법도 하건마는 시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유쾌하기만 하다. 두 번 유배객이 되고 보니 아는 연분도 생겼다는 말에서 서글픔이 배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아름다운 기녀를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수줍음도 타고,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을 만나면 웃음을 터트리는 그의 모습은 유배객이 아닌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다. <濟州雜詩>其八에서 “만 필의 명마 번성하고, 천 그루 굴나무 숲 무성하네. 양주 고을로 오하려 상을 주셨으니, 널리 보며 마음껏 무릉도원을 찾아볼까나.”⁵⁴⁾라고 읊은 데서도 드러나듯 북현은 제주에서의 삶을 즐겁게 영위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和’의 자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시도 있다. 제주를 유형의 땅으로 인식하고, 유배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시들이 바로 그러하다.

有客有客山池客	나그네 나그네 산지나그네
一身百罪凡四謫	한 몸에 백가지 죄, 모두 네 번의 유배.
百罪在身不自知	백 가지 죄 내게 있음 스스로 모르겠고

53) 『北軒集』 卷2, <濟州雜詩, 謾用子美秦州雜詩韻> 二十首中其二十.

54) 『北軒集』 卷2, <濟州雜詩, 謾用子美秦州雜詩韻> 二十首中其八, “萬匹驕驪盛, 千林橘柚繁. 楊州猶錫貢, 博望謾尋源.”

但道蒼天照心赤 다만 말하리. 푸른 하늘 이 붉은 마음 비추리라
고.⁵⁵⁾
…(下略)…

앞서 살펴본 시에서 복헌은 謫居인 山池에 대해 모든 아름다움을 구비한 고향 같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점은 ‘客’이라는 표현이 한 구 내에서 세 번이나 언급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상 복헌은 이곳 산지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산지는 정녕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므로 그는 억울하게 유배된 나그네일 뿐인 것이다. 추석 전날 지은 연작시에서 “옛부터 쫓겨난 선비, 성명한 후에 아님이 없었네.”⁵⁶⁾라고 한 데서도 복헌의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濟州雜詩>其三에서 “유학의 도 지금 의지할 곳 없으니, 푸른 하늘에 또한 맡겨야 하리.”⁵⁷⁾라고 읊었듯이 위의 시에서도 푸른 하늘만이 자신의 丹心을 안다고 탄식했다. 이처럼 제주와 하나 될 수 없는 그의 의식 속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조정의 결정을 거부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다음 시에서도 제주에 대한 애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이곳을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의식의 반영이다.

誰分蝸一角 누가 달팽이 뿔 같은 조각 땅 나누어
落在鉅波間 큰 파도 사이에 떨어어 두었나.

55) 『北軒集』卷2, <山池七歌>七首中其一.

56) 『北軒集』卷2, <秋夕前一日, 偶閱坡詩, 得君門深九重, 墳墓在萬里之句, 遂分韻爲十絕句> 十首中其四, “古來放逐士, 非無聖明后.”

57) 『北軒集』卷2, <濟州雜詩, 謾用子美秦州雜詩韻> 二十首中其三, “斯道今無託, 蒼天且任之.”

氓俗穿皮服 백성들 풍속 가죽 뚫어 옷 해 입고
 村居掩石關 주거지엔 돌담으로 문을 거네.
 鹵田多不種 밭에 소금기 많아 곡식 자라지 못하고,
 風舶動無還 배는 바람에 요동치다 돌아오지 못하네.
 北客來茲土 북쪽 나그네 이 땅에 와서
 那能免苦顏 어찌 괴로운 얼굴 안 할 수 있으리.⁵⁸⁾

수련에서는 바다 한 편에 위치한 제주의 외로운 형상을 묘사했으며, 함련에서는 제주의 풍속이 문명 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바다의 소금기 때문에 농사가 힘들고, 바람이 많아 배를 띄우기가 수월치 않은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하나같이 부정적 내용 일색으로 앞서 살펴본 두 수의 시에서 보여준 애정 어린 시선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시상은 마지막 미련에까지 이어져 북쪽에서 온 나그네의 괴로운 얼굴로 시는 마무리 되었다. ‘北客’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심중에는 제주와 하나 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이처럼 북천이 제주에서의 삶에 안주하며 침묵을 지키는 대신 거부의 몸짓을 보인 것은 자신의 도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가을의 흥취를 읊은 시, <秋興>其一에서 “만리 떨어진 사립문의 바닷가 마을, 한라산의 수심 띤 빛 황혼이 지네.”⁵⁹⁾ 라는 말로 자신의 정회를 풀어낸 바 있는데 여기서 석양 속 한라산의 우울한 색채는 바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 그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대해 북천이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58) 『北軒集』 卷2, <濟州雜詩, 謾用子美秦州雜詩韻> 二十首中其五.

59) 『北軒集』 卷2, <秋興>八首中其一, “萬里柴門海上村, 挈山愁色對黃昏.”

글을 한 편 살펴보겠다. 다음 인용문은 <濟州東泉謫舍記>의 일부이다.

제주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바닷길로 천 리라서 풍파에 대한 걱정을 헤아릴 수 없었으며, 도착해보니 무덥게 찌는 데다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백성의 풍속이 고루하고 친박하며 살아가는 방도가 고달픈은 물론이요, 풀, 나무, 흙, 돌 등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눈과 귀에 접하는 모든 사물이 육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육지의 소식은 만약 순풍을 만나지 못하면 간혹 몇 달이나 해를 넘기도록 두절되어 비록 여기 관에 있는 사람도 모두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어려움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유배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죄명이 아주 중한 자는 행여 사형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곤욕을 치르게 되니, 어찌 그 땅이 국토 중에서 가장 곤궁한 곳이 아니겠는가.⁶⁰⁾

아마도 이 글의 내용이 제주도에 대한 복헌의 진심이리라 생각된다. 죄가 중한데 사형을 면한 자가 유배되는 곳이 당시의 제주였다. 복헌은 제주를 제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관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장에서 논의한 ‘和而不同’의 자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과 조화를 이루려는 ‘和’의 마음 한쪽에는 현실을 거부하고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 세력에 저항하는 ‘不同’의 자세가 있었는데, ‘和’의 자세가 그러하듯 ‘不同’의 자세 역시 제주도를 매개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복헌은 제주에 온전히 동화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시<臨水偶吟>에서 “어찌하여 이곳을 지

60) 『北軒集』卷13, <濟州東泉謫舍記>, “濟之爲地, 海道一千里, 風波之虞不測, 至則炎蒸霧雨, 非人所堪. 無論其氓俗陋薄, 生理艱荒, 卽草木土石朝夕百物接乎人之耳目者, 莫不絕異於陸. 陸之聲信, 苟不得便風, 或阻絕累月逾歲, 雖官于此者, 亦皆怖畏憂戚. 若患難然, 況謫乎哉. 故凡罪名之極重者, 幸不殺死, 則必於此而困辱之, 豈不以其地之最窮於國中也.”

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가.”⁶¹⁾라고 한 데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 복헌의 정신 자세를 읽을 수 있다.

5. 맺음말

제주도 유배 문학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인상에 남는 점은 흔치 않은 고 씨, 양 씨, 부 씨 성을 가진 연구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고, 양, 부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세 성씨인 까닭에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연구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조선 시대의 제주도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가 아닌 모든 악조건을 구비한 유형지였다. 그래서인지 제주 유배인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듯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 분명 유배를 당한 사람도 하고 싶은 하소가 있었을 것이고, 유배를 보낸 사람도 내세우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논외로 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한 점은 조선조 한문학에서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에 관해서였다. 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유배인들 중에서 제주에서의 명당과 인지도, 시문의 특성과 작품성 등을 고려해서 충암 김정, 동계 정은, 복헌 김춘택의 유배 시를 대상 텍스트로 정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유배 시기가 16,17,18세기의 분들이 고루 선정되었다.

이 세 분은 제주 유배리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개인적 상황과 처지의 차이가 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했다. 그리

61) 『北軒集』卷2, <臨水偶吟>, “胡然此相守, 世人應見哈.”

고 이러한 시적 특성의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있어 조선조 한문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선비정신임을 염두에 두고, 儒家之教의 구현 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한 결과 세 분들로부터 각각 ‘君子固窮’, ‘舍生取義’, ‘和而不同’의 정신 자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이 孤立無援의 絶域에서 구현한 儒家之教임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論語』

『孟子』

金 淨, 『冲庵集』

鄭 蘊, 『桐溪集』

金春澤, 『北軒集』

『國譯 冲庵集(上·下)』, 김종섭 번역, 충암 문간공 중증 발행, 1998.

『국역 동계집(1·2·3)』, 조동영, 공근식, 박대현 번역, 민족문화추진회, 2000-2004.

『北軒集』, 김익수 번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발행, 2005.

2. 연구논저

고창석, 「朝鮮朝의 流刑制度和 濟州島」,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6, 51~69면.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정현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381~409면.

부영근, 「桐溪 鄭蘊의 濟州 流配詩 考察」, 『동아인문학』 제10집, 동아인문학회, 2006, 49~67면.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241~254면.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1982, 1~157면.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1~233면.

이종묵,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제9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3~65면.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9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7~31면.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Exile Literature
in Jeju during Joseon Dynasty⁶²⁾

Jeong, Si-You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Jeju exile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during Joseon Dynasty. And it is unquestionable that one of the keywords in Chinese literature during Joseon period is the spirit of Seonbi. If so, to approach to the exiles' poetic literature through Saseo(四書), the basic scriptures of Confucianism and what integrates the ideas of Mencius is to examine the status of Jeju exile literature in Chinese literature during Joseon period and also explore the effects of Jeju exile literature on Chinese literature in Joseon indirectly.

This article selected as its subject text the exile poems of Chungam Kim Jeong, Donggye JeongOn, and Bukheon Kim Chun Taek among up to 200 or so exiles considering their reputation and recognition in Jeju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rtistry of poetic literature, etc. It could be coincidental but those whose exile period was in the 16th, 17th, and the 18th century were chosen evenly.

Chapter 2 discusses this attitude of 'Gunjagogung (君子固窮)' with the Jeju exile Chinese poems of Chungam Km Jeong who has been revered as one of the Gimyomyeonghyeon (己卯名賢). Chungam is the figure who was put to death at the age of 36 spending mentally daunted and anxious days for severe hardships during his exile period in Jeju for one year and two months but still maintaining the attitude of 'gogung (固窮)' firmly. Chapter 3 discusses the Jeju exile Chinese poems of Donggye based on his spirit of 'Sasaengchwiui (舍生取義)'. Donggye is the figure that confronted

62)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9.

Daebuk School including his mentor Jeong In Hong leading the political situation then. He asked to execute Jeong Hang, the Ganghwa Busa, who killed Yeongchang Daegun by beheading and was imprisoned in a thorn fence in Jeju by Gwanhaegun in 1624 when he was 46 years old. After spending nine years of poverty and hardships, he was released from his exile for Injobanjeong in 1623 when he was at the age of 55. Chapter 4 examines the Jeju exile Chinese poems of Bukheon Kim Chun Taek based on his spirit of 'Hwaibudong (和而不同)'. To Bukheon, Jeju was the place of love and hatred because he and his father went there for exile, that is, two generations in a row. That is why his poems written in his exile period show dual views to Jeju.

Although the three had the common experience of exile in Jeju, their personal situations and positions affected their poems differently, which is the point this article focuses on. And based on the result of considering how the aspects of realizing Yugajigyo (儒家之教) differ in figuring out the differences of their poet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uld extract from the three figures 'Gunjagogung', 'Sasaengchiwiui', and 'Hwaibudong' each. Through that, this paper affirmed the status of Jeju exile literature in Joseon is Yugajigyo realized in the far distance of Goripmuwon (孤立無援).

Key Words Jeju, exile, Chungam, Kim Jeong, Donggye, Jeong On, Bukheon, Kim Chun Taek, Gunjagogung, Sasaengchiwiui, Hwaibudong.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